

미래산업 고도화 · 민생안정 도모

전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통한 미래성장 도약 · 민생안정 추진' 위한 산업 · 경제 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 한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 도약과 민생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일 경제산업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 도약과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3대 미래산업(수소, 탄소, 드론) 고도화 △신성장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3고(고) 위기 극복 지원 강화 △내실 있는 일자리지원 △민생안정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생태계 성장동력 발굴 및 강화 등이다.

먼저 시는 지역 수소산업 생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구축하는 등 수소와 탄소, 드론 등 3대 미래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드론 분야의 경우 최근 CES 2024 드론축구 전시·출품을 시작으로,

드론 레저스포츠 연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지역경제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 디지털·금융·ICT·바이오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올해는 과기부의 '디지털 혁신거점' 공모에 적극 대응해 지역 산업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시는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전북도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금융도시로의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기로 했다.

또,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공사도 연내 마무리해 관련 기업의 성장 발전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자금지원 △해외수출기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노사문화 지원 등 4개 분야 총 18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도 대폭 늘렸으며,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오는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LH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내실 있는 일자리 지원으로 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도 공을 들인다. 구체적으로 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힘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정기배송 구독서비스 '전주구독' △소담스퀘어 전주 운영 △지역 우수상품 흡수형 방송지원, △전주 희망터드림 특별보증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끝으로 시는 기존 사회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3개 센터를 지역소통협력센터로 통합해 효율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성장, 판로개척 지원 등에도 힘써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이처럼 전주시 주력산업과장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해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드는데 이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사랑의올타리자원봉사단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설맞이 명절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설맞이 정성 가득 명절음식 나눔

전주시 덕진구 사랑의올타리자원봉사단, 봉사활동 펼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 사랑의올타리자원봉사단(회장 이성희)은 지난날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설맞이 명절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 회원 150여명은 쌀쌀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다듬고 준비해 삼색전, 동태전, 돼지고기 완자전을 정성껏 만들고 떡국떡, 과일 등을 더하여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설명절음식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160세대에 전달했다. 이성희 회장(덕진구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에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기 바라며, 모두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랑의올타리 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 가득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어려운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전달되어 훈훈한 설명절이 되길 바란다. 이웃사랑 나눔문화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협조를 다하여 따뜻한 전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강한 경제 구현' 위한 공약사업 '순항'

전주시, 2023년 4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 41%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민선8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일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선8기 공약평가단과 함께 도시·경제·문화·복지 4개 분야에서 공약 이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41%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선8기 전주시 89개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시정연구원 출범 △문화관광도시로서 전주의 맛과 멋을 담은 대표축제 첫 개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등 10개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전주형 일자리 창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 등 8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종합경기장 개발 본격화와 탄소·수소·드론 3대 미래산업 육성, 왕의 궁일 프로젝트 등 나머지 79개 주요 공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분야의 경우 지역의 오랜 난제였던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은 노후화된 야구장 철거를 시작으로 전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MICE복합단지 조성의 첫 단계인 민간 투자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실시실제 용역 착수 △전주형 혁신관광 소셜 플랫폼 실시실제 착수 등을 통해 100만 통합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의 기틀을 다졌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탄소산단 착공을 시작으로 △탄소소재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드론·UAM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이다.

문화 분야의 경우,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왕의궁일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곳곳 산재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관

광자원화하는 29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끝으로 복지 분야 공약사업으로 △아동 돌봄시설 등 공공돌봄 인프라 확대 △어르신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 △치매치료비 지원 전 시민 확대 △전주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가 강한 경제도시로서 더욱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약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확실한 변화와 시민들이 염원하는 전주의 미래를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가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출향청년과 전주시에 전입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청년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

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돌아온 출향청년뿐 아니라 타지에 살다 전주시로 전입한 전입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최대 1년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무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하며,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따른 발전 방향 모색

1일 전주시의회 1층 다목적홀에서 전주시의회 전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채영병(호주2, 3, 4등) 의원 주축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와 전주시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주시 발전 방향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채영병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는 전서영 의원의 개회사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돼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임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요한 변화들을 소개하며 "특별자치도라는 기회를 특별한 발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중심의 전환산업 활성화와 적극적인



인 주민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임성진 교수를 좌장으로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전서영 전주시의원, 추

신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활용한 전주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서영, 채영병 의원은 "특별자치도 시대 전주시가 한층 더 도약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주시의회는 전문가의 특색을 바탕으로 특례를 적극 연계·발굴하고 조례를 정비해 더욱 도약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정읍 서히스타힐스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부담은 내리GO↓
행복은 올리GO↑**

정읍 서히스타힐스

토지 100% 확보! 평당 900만원대, 707세대 대단지

(일부세대 제외) (1.2단지 포함)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바꿀 **PREMIUM 6**

- 01 KTX 정읍역, 버스터미널, 정읍 IC 등 **빠르게 누리는 쾌속 교통**
- 02 정읍남초, 호남중고, 정읍제일고 등 **도보통학 안심학교**
- 03 내장산, 초산 등을 가까이 누리는 **쾌적 예코 조망 예코 프리미엄**
- 04 정읍시스포츠타운, 정읍시장 등 **윈스톱 인프라**
- 05 정읍 내 최대 주차 대수를 자랑하는 **넉넉한 주차공간**
- 06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서히스타힐스 프리미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라이프**

고품격 커뮤니티 · 정읍시스포츠타운

힐스 · 송마 · 배드민턴 · 게임트볼 · 수영 · 축구 · 테니스 등

- 1 새로운 명품 힐링공간까지 주는 **주방엔 스카이라운지**
- 2 입주인원이 20여 명이 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공간 라운지바**
- 3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입주인 전용 **인내 학습공간 작은도서관**
- 4 활력을 선사하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힐트니스센터**
- 5 이웃과 함께 언제든 교류연속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 실내골프연습장**

2월2일 GRAND OPEN 59㎡, 84㎡, 120㎡ 총 707세대 **문의 063) 533-1600**

*세가지방(방2+방1+방1) 1.2단지(2024년 2월 2일)부터 입주 예정 *세가지방(방2+방1+방1) 1.1단지(2024년 2월 2일)부터 입주 예정 *세가지방(방2+방1+방1) 1.3단지(2024년 2월 2일)부터 입주 예정